

마을리더, 생태관광 해설사로 양성

도, 생태관광지 마을핵심리더 40여명 대상 양성교육 실시... 주민 주도 생태관광지 운영 기대

전북도가 생태관광지 마을리더를 생태관광 해설사로 양성한다. 전북도는 28일 정읍 솔타마를 꽃담 아카데미에서 12개시군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소수의 마을핵심리더 4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생태관광 마을리더 해설사는 생태관광지의 문화·역사·생태자원·경관 등에 대해 마을주민 교육, 탐방객 해

설은 물론이고, 생태관광지 개발 및 운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주민갈등의 이해와 저감노력, 관광객 환경인식 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는 '자연생태놀이 프로그램 개발 체험교육(그것을 찾아라, 솔밭을 장치기 등)'과 '생물자원조사(식물, 곤충, 포유류, 조류, 어류 등) 및 마을자원조사 공유워크숍'을 실시

했다. 또한 정읍 꽃담아카데미의 '야생화 이야기'와 생태관광 지역협의체를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전북도는 마을리더를 마을해설사로 양성하여 에코매니저 역할과 마을해설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생태관광지의 자발적인 경영과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더욱 심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육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내년 전북지역 하수도사업 국비 1935억원 확보 지원키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8년도에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130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계속사업 94개, 신규사업 36개)에 국고 1,935억원을 확보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703억원(36.3%)으로 가장 많고,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521억원(26.9%),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123억원(6.4%), 도시침수 방지사업 117억원(6.0%) 순으로 지원된다. 시군별로는 부안군 407억원, 진안군 177억원, 전주시 176억원, 익산시 172억원, 남원시 169억원 순이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은 새만금수질개선 사업과 용담호 및 육정호의 상수원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노후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도시지역 등 취약지역의 하수도서비스개선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편성하였다.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73억원을, 육정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작년 전주시, 남원시, 고창군에 이어 2차년도 사업비로 군산시 등 4개 시군에 20억원이 우선 지원되며, 하수도정비 종합관리 지역 부안군의 도시침수 2개 사업에 11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 취약지역에 521억원을 지원하여 하수도서비스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고할 계획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설계착수, 부지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연내에 준비하여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2018년 하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진성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열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8차 임시회가 2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형성 확인검사 실시

전북도, 12월 15일까지 소 100호·돼지 70호 1620두 대상... 도축장 확인검사도

전북도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돼지 취약농가 일제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축산농가 백신접종 및 항체형성 여부 확인검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두수는 소 100호(한우 66, 젓소 34), 돼지 70호 총 170농가 1,620두로, 대상 농장은 도내 14개 시군이 고르게 검사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 농가당 소는 5두를, 돼지는 16두씩 무작위로 개체를 선발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농가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동 기간에 도축장 출하 모든 소와 돼지는 농가당 10두를 검사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급근 돼지 백신항체 저조 농가를 특

별관리대상농가로 지정하여 특별방역 기간인 2018년 5월까지 도축장 출하 시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60%이상인 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비발생을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 접종이 가장 우선이므로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혁신성장 주체는 국민”

“당정청, 관련법·예산 국회 통과 노력해 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 에 대해 “양대 축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의 추진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적 자원의 보다 나은 투자가 이뤄질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방안을 설계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률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청이 긴밀 협조해 혁신적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전략이라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도 그에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역량을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의 개념 정립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실증은 먼저 보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민간의 상상력을 낚는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며 “규제 혁신은 속도 못 타미미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육군 35사단 ‘6·25전사자 유해 합동영결식’

육군 35사단이 28일 국립 임실호국원에서 6·25전사자 유해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날 영결식은 유해발굴 경과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 추모시 낭송, 추모사, 종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35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전북 순창군 쌍치면 347고지 일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매진했다. 이번 유해발굴 사업에는 7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으며, 유해 2구와 전투화, 총기 등 유품 421점을 발굴했다. 영결식을 마친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립묘지 등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경수 사단장은 추모사를 통해 “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진불사(一戰不辭) 각오로 선배 전우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명 기자

전주시 공고 제2017-1806호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수립한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1. 29. ~ 12. 13. (14일)
2. 공람장소: 전주시청 견고싶은도시과(대우빌딩 5층)
3. 공람내용: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4. 공람방법
 - 관계도서는 전주시 견고싶은도시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전주시청 견고싶은도시과 ☎ 063-281-2485

2017년 11월 28일 전주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남호